

포천 PVC 공장에 화재 발생

내부 700㎡에 기계·자재 소실 ... 재산피해 9000만원 달해

포천의 한 PVC(Polyvinyl Chloride) 공장에서서 불이 나 9000만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.

3월17일 오전 11시20분 경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의 한 PVC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30여분만에 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.

불은 공장 내부 700㎡와 기계, 자재 등을 태워 9000만원의 재산피해(소방서 추산)를 냈으며, 공장 내부에 있던 직원들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.

경찰과 소방당국은 “기계에 갑자기 불꽃이 솟았다”는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.
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3/18>